

한국인의 금연 실태

지선하 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

1. 현재 흡연자의 금연의지

건강에 피해를 주는 많은 물질과 위험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'담배'이다. 담배는 현 시대에서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이다.

1999년 4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국민의 흡연인구는 1240만명으로 추정되었다.

이중 앞으로 한 달이내 담배를 끊겠다고 생각하는 흡연자가 9%(약 120만명), 앞으로 6개월이내 금연을 하겠다고 응답한 군이 8%(약 100만명)이었다. 연령대별로는 한달이내 금연하겠다는 군이 60대(11.4%)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20대(10.8%), 그리고 30대와 50대가 각각 7.1%이었다.

직업별로 금연의지를 살펴보면 남자 흡연자의 경우 한달이내 금연을 하겠다고 응답한 것은 학생이 1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농/임/어업이 11.8%, 불루칼라 9.8%, 무직 7.7%이었으며,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이 7%이하로 가장 낮았다.

2. 얼마의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는가?

최근 한국인의 성인 남자흡연율이 약 65%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(한국갤럽, 1999). 이러한 흡연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군에 속한다. 그러나 1980년 흡연율 79.3%(대한결핵협회, 1980)와 비교하면 약 15% 감소한 수치이다. 특히 1990년이후 최근 10년동안에는 매년 흡연율이 1%씩 감소한 것은 듣고 싶었던 뉴스중의 하나이다.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금연인구는 1999년 현재 약 370만명, 이중 약 258만명은 지난 10년동안에 금연한 것으로 추산된다.

이러한 금연인구중 약 20%가 지난 1년내에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.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100만명의 흡연자가 지난 1년동안 담배를 끊은 것으로 추산된다. 이는 그동안 일년에 약 10만~15만명이 담배를 끊는 일반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매우 희망적인 금연추세라고 볼 수 있다.

흡연경험 인구중 금연인구의 비율을 보면 1980년에는 흡연경험인구중 약 5%가 금연자이었는데, 1999년에는 23.1%로 4배이상 금연인구가 증가하였다(표1).

표1. 흡연경험 인구중 금연인구의 분율

단위 : 천명

연령	1980	1990	1999
금연인구수	513(4.9)	1,154(9.7)	3,732(23.1)
흡연인구수	9,999(95.1)	11,867(90.3)	12,411(76.9)
전체(흡연경험인구)	10,512(100.0)	13,021(100.0)	16,143(100.0)

3. 금연인구의 특성

1) 연령별 금연율

연령별 금연율을 보면 남자인 경우 60대가 34.9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50대가 32.3%, 40대가 22.3%순이었다.

2) 금연 하게 된 이유

금연하게 된 이유를 보면 본인의 건강이 나빠서가 70.9%,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10.6%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때문에 담배를 끊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 그밖에 경제적인 이유 3.8%, 신앙생활 때문에 4.2%, 많이 피우지 않으므로 4.1%,

금연장소가 많아져서 1.1%, 주위권유 2.8%, 교육상 안좋아서 0.3%, 백해무익 2.2% 순으로 나타났다(그림 참조).

3) 평균 금연횟수

한국인의 평균 금연횟수는 21회이다. 이는 미국의 경우 40회보다는 훨씬 낮다. 금연을 시도한지 한번이라고 대답한 금연자가 64.6%, 2회 13.2%, 3회 12.8%, 4회 4.5%, 5회 0.8%, 10회 2.5%, 15회 이상이 1.6%로 나타났다.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, 40대 이상에서보다 높았다. 그리고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보다는 중학교 졸업 이상에서 높았다. 丰

금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